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홍 선 표*

1. 머리말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기 비행대 설립 구상과 비행학교
3. 김구의 공군 건립 구상과 공군설계위원회의 조직
4. 한미 연합 공군의 건설계획과 추진
5. 맺음말

1. 머리말

3·1운동 직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국독립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동안 분산되어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각지의 독립운동은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독립운동의 전 시기 동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관되게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수많은 굴곡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 존재는 한국독립운동의 단계를 한 차원을 높여 주었다.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팀장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서 나타났듯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잇는 뿌리이다. 제헌헌법(1948.7.17)에는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이라 하였다.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이 ‘건립’되었고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민주 독립 국가로서 대한민국이 다시 ‘재건’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제9차 개헌헌법(1987. 12. 29)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기술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불가분의 역사적 관계에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탄생은 해방 직후 몇몇 정치인들의 주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역경과 질곡 속에 전개된 한국독립운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해 이루어졌다는 의미이다. 이런 연유로 현재 대한민국의 국군은 해방 후 성립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해 각지에서 전개된 독립군의 군사활동과 이러한 독립군을 계승·발전시킨 한국광복군에서 그 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의 정통성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찾아야 한다면 대한민국 공군의 정통성 또한 마땅히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근거를 찾아야 한다. 임시정부에서 추진한 각종 군사운동, 그 중에서 비행대의 설립과 공군 조직을 위한 각종 시도는 비록 그 결실의 여부를 떠나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군의 기원이자 정통성의 근거가 된다. 그 외 일제강점시기 각 개인별로 전개된 항공인들의 활동상은 한국독립운동과의 연계 속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 직후 공군 창설에 참여했던 항공인들의 경우 현 공군 창설의 기여자로 분명히 기억하고 또한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현실적인 필요와 당면한 요구에 의한 것이고 역사적 맥락의 흐름과 연속성에서 공군 역사의 근원과 정통성을 찾는 필요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다.

공군 창설의 기원을 역사적 관점에서 찾지 않고 현실적인 상황 논리를 통해 찾는다면 공군의 정통성을 수립하고 확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 관점이란 이전과의 단절된 시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찾고 이것이 어떻게 연속되어 발전해 갔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나온다. 한국독립운동의 역사는 바로 우리 국군 창군 역사의 뿌리이자 공군 기원의 역사가 있는 곳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고는 공군 역사의 기원과 정통성 확립을 위한 과업으로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그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활동 속에 찾아 정리하고자 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이하 ‘임시정부’ 또는 ‘임정’으로 약함)의 공군 건설계획을 다룬 기존 연구에는 정제우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행사 양성과 공군창설 계획」(『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 논문집』(하)(국가보훈처, 1999)이 있다. 이 글은 미주의 비행사 양성운동과 임정의 공군계획 모두를 다 다루려 함으로써 글의 내용이 대체로 소략하고 개론적이다. 하지만 공군 창설을 위한 임시정부의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공군본부에서 제1집 개정판으로 발간한 『공군사』(2010)에는 공군 창군의 배경으로 월로스의 비행학교만 언급하고 바로 해방 직후 창군 과정으로 넘어간다. 임시정부의 활동상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해방 직전까지 임시정부가 추진한 공군 창설의 일련의 과정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그 가운데 미주의 비행사 양성운동, 즉, 월로스 비행학교의 설립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대강만을 정리하되 그것이 임정에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왜냐하면 월로스 비행학교라는 주제만으로 단일 논문 또는 단일 책으로 엮을 만큼 범위가 넓고 깊기 때문에 본고에서 이를 다 다루기 어렵다. 중국 각지에서 활동한 우리 항공인들의 개별 활동에 대해선 추후 과제로 남겼다.

2.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초기 비행대 설립 구상과 비행학교

가. 비행대 설립 구상과 시도

상해에서 설립한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대외에 발표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6조에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납세 급 병역의 의무가 유함”이라 하여 군대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4월 25일 공포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장정」에는 정부 부서 안에 군무부를 두고 군무총장은 육·해군 軍政에 관한 사무를 掌理하며 육·해군 군인 군속을 통할하고 소관 급 公署를 감독한다고 규정하였다.¹⁾ 이 때까지 군대의 개념은 육군과 해군만을 의미하고 있었다. 당시 임정의 사정은 파리강화회의를 위해 파견된 김규식이 열강을 상대로 활발한 외교활동을 전개할 때여서 외교론에 치우친 독립운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1919년 7월 8일 내무총장 안창호는 시정 연설에서 “가급적 군사활동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 하였지만²⁾ 독립운동의 방략에서 군사의 개념과 군사활동에 대한 비중은 보잘 것 없었다.

1919년 9월 한성정부, 노령정부, 상해정부가 통합해 탄생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9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개정, 공포하였고 이를 토대로 9월 15일 통합 임시정부 수립을 대내외에 공포하였다.³⁾ 총리제를 대통령제로 바꾸고 행정 6부에서 7부 1국으로 변경하였다. 이 가운데 군사 부문의 경우 정부 조직 안에 군무부를 두되

1) 한시준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집』, 국가보훈처, 1999, 88~89쪽.

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 (임정편Ⅱ), 1971, 400쪽.

3) 『독립신문』 1919년 9월 16일, 「개정공포된 신헌법」.

대통령의 직권으로 “육·해군을 통솔”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여전히 군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비중이 낮았는데, 이것은 임정 대통령 이승만이 1919년 8월 구미위원부를 설립한 이후 외교활동에 계속 역점을 두면서 나온 현상이었다.

1919년 11월 5일 법률 제2호로 공포된 「대한민국임시관제」는 이전과 달리 군사 분야의 역할과 활동을 강화하였다.⁴⁾ 즉, 임시대통령을 원수로 한 군사 최고 통솔기관인 大本營을 두었고, 국방과 用兵에 관한 모든 계획을 통솔하는 참모부와 군사에 관한 임시대통령의 諮詢機關인 軍事參議會를 두었다. 그리고 군무부의 “군무총장은 육·해군 군정에 관한 사무를 장리하며 육·해군인 군속을 통할하고 소관 각 관서를 감독”하게 하였다. 아울러 군무부 안에 陸軍局과 海軍局을 분리하였고 육군국 안에 ‘육군비행대에 관한 사항’, 해군국 안에 ‘해군비행대에 관한 사항’을 두어 육·해군에서 각기 비행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육·해군 내에 비행대 설립을 규정한 것은 처음으로 임정 내부에서 비행기와 비행사에 대한 인식을 갖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임시정부는 1919년 12월 18일자로 군무총장 노백린의 명의로 군무부령 제1호 「임시군사주비단제」를 비롯해 「대한민국육군임시군제」, 「대한민국육군임시군구제」, 「임시육군무관학교조례」, 「陸軍士學學則」 등 각종 군제 관련 법령과 조례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임정이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위해 독립전쟁론에 무게를 두고 군사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통합 임정의 노동국총판 안창호는 1920년 1월 3일과 5일에 걸쳐 거행한 신년축하회 연설 「우리 국민이 단정코 실행할 6대사」에서 다음과 같이 1920년을 독립전쟁의 해로 선포하였다.⁵⁾

4)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호외」(1919. 11. 5),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2004, 15~25쪽.

5) 『독립신문』 1920년 1월 8일; 1월 10일, 「우리 국민이 단정코 실행할 6대사」

우리가 오래 기다리던 독립전쟁의 시기는 금년인가 하오. 나는 독립전쟁의 해가 이르는 것을 기뻐하오.

이어서 그는 독립전쟁을 준비할 방략으로 ① 군사, ② 외교, ③ 교육, ④ 사법, ⑤ 재정, ⑥ 통일을 6대사로 간주해 대비할 것과 이를 추진하기 위해 國民皆兵主義, 國民皆納主義, 國民皆業主義를 주장하고 이 모두가 일본과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이라 하였다. 6대사에 대한 연설에서 안창호가 특별히 군사 방면을 가장 서두에 언급한 것은 임정이 향후 독립전쟁을 수행하는 일에서 가장 역점을 두겠다는 의미였다.

임시정부는 1920년 1월 신년을 맞이하여 러시아와 중국 내 거주하고 있는 한인 동포들에게 공포한 「국무원 포고」 제1호를 통해 군사활동의 방침을 대외에 천명하였다.

2천만 대한 민족이 일심일체가 되어 死냐 자유냐의 독립 대전쟁의 제1년을 작할 대한민국 2년의 신춘을 제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아 독립전쟁의 중견이 될 俄中[러시아와 중국] 兩領의 2백만 동포에게 고하노라. ---- 독립전쟁이 우리의 기정의 행동이라 하면 이에 대하여 가장 중대한 책임을 負한자 누구뇨. 오직 愛我 俄中 兩領의 2백만 동포로다.⁶⁾

즉, 만주와 러시아 지역에 사는 한인 동포들을 중심으로 독립전쟁을 전개해 나가겠다는 것이었다.

국무총리 이동휘는 1920년 3월 2일 임시의정원 회의(2.23~3.30)에서 신년도 임시정부의 시정방침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군사 부문을 언급하였다.

군사에는 독립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紀律的으로 진행하여 최후

(1), (2).

6) 『독립신문』 1920년 2월 5일, 「국무원포고 제1호」.

승리를 득하기까지 지구키 위하여 그 방침으로 일변으로 군사지식을 양성하며 일변으로 養勇兵을 모집하여 가히 실행할만한 모모지점으로 장래 의거의 예비를 뜻하나이다. 차에 대하여 계획의 여하함은 기밀에 속함으로 명언치 못하나이다.⁷⁾

이동휘는 임시정부가 향후 독립전쟁의 대세 속에 군사지식을 배양하고 용병을 모집하는 일에 박차를 가할 것이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선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하여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모종의 군사활동을 착수하였음을 암시하였다.

윤기섭·이진산·이유평·김홍서·왕삼덕 등 5인은 1920년 들어 처음 가진 임시의정원 회의(2.23~3.30)에서 「군사에 관한 제의안」을 제출하고 임정은 금년 안에 혈전을 개시하되 이를 위해 군사기관을 만주로 이동시킬 것을 요구하였다.⁸⁾ 이러한 제안에 대해 임시의정원은 원안을 가결시켰다.

1920년 새해에 들어 독립전쟁의 목표 속에 수립한 군사활동에 대한 세부 계획은 1920년 3월 임시의정원에서 국무총리 이동휘가 연설한 14개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정방침」 속에 반영되었다.⁹⁾

7) 『독립신문』 1920년 3월 4일, 「국무총리 시정방침 연설」.

8) 『독립신문』, 1920년 4월 3일, 「군사에 관한 건의안」.

9) 이동휘가 밝힌 임시정부 시정방침은 1919년 11월 17일과 12월 12일에 개최한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1920년도 정부의 ‘大政方針案’ 제정을 논의하면서 안창호, 신익희, 윤현진 세 사람을 대정방침 작성위원으로 선출하고, 12월 15일 이들이 작성한 대정방침을 확정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나온 것이다.(윤대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운영과 독립방략의 분화(1919~1930)」,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162~166쪽)

그런데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114쪽에 의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정방침」의 결정 시기를 1919년 9월 17일경으로 본 이연복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정책」(『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80주년기념논문집(하)』) 15쪽의 글과 김회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I-상해시기(한국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2008)의 119쪽 주) 55에서 제시한 1919년 9월 발표설은 오류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정방침」은 1920년 5월 일제측의 정보 보고에서 나오고 있으나 1920년 초까지 임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정책 방향을 정리한 것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정방침」 중 군사관계를 보면 “독립운동의 최후 수단인 전쟁을 대대적으로 개시하여 법률적으로 진행하고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한 開戰 준비 작업으로 ‘국외의용병’과 ‘국내의용병’을 모집해 편성하고 ‘사관학교 설립’, ‘작탄대 편성’을 명시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비행기대 편성’을 규정하였다.

미국에 기량이 우수한 청년을 선발 파견하여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학습케 한다.¹⁰⁾

‘비행기대 편성’ 계획은 그 실현 여부를 떠나 임시정부의 군사계획 수립 시 새로운 군사조직인 비행부대, 즉 공군력 건설의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임시정부가 ‘비행기대 편성’을 향후 과제로 삼고 미국에서 비행기 제조와 비행전술을 배우게 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은 노백린이 1920년 1월부터 비행사 양성에 목표를 두고 군단 설립을 착수할 때 상해 임시정부와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나온 결과였다. 특히 노백린과 이동휘는 서신 교류를 통해 독립전쟁의 한 방안으로 비행사 양성에 두고 서로 협력하였다.¹¹⁾

독립전쟁을 실현하기 위한 임정의 실제 행동은 1919년 말 육군무관학교 개교를 통해 이미 착수되었다. 육군무관학교는 1920년 5월 8일 제1기 19명, 1920년 12월 24일 제2기 24명 등 총 43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다.¹²⁾ 그리고 임시정부는 비행기를 구입해 선전용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것은 다음의 「대한민국

10)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976, 110쪽.

11) 여기에 대해선 홍선표, 「초기 항공선각자들의 항공사상과 활동-노백린 장군의 비행학교 설립과 영향을 중심으로」, 대한민국공군·공군역사재단 편, 『초기 항공선각자들의 항공사상과 한인비행사들의 항일항공독립활동 고찰』(제2회 공군역사재단 학술회의 논문집: 2015. 11. 19), 20~22쪽 참조.

12) 『독립신문』 1920년 6월 10일, 1921년 1월 1일.

임시정부시정방침」 속에 반영되었다.

비행기로 국내 각지를 순회하며 정부의 명령을 널리 보급하고 인민의 사상을 격발케 한다.¹³⁾

비행기를 사용해 정부의 소식을 널리 전파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독립사상을 격발시키겠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생각을 갖고 비행기 구입을 추진한 사람은 안창호였다.

안창호는 제1차 대전 시기 비행기의 활용성을 높이 평가하고 장차 비행기가 독립전쟁 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임시정부는 1919년 7월 10일 국무원령 제1호로 ‘임시 연통제’를 공포하고 실시하였는데 이 일을 창안하고 실행한 사람은 안창호였다. 안창호는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서 맨 처음 착수한 행정 업무로 연통제를 수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와의 연락과 재정을 확보하려 하였다. 1920년 들어 안창호는 국내외에 한국독립운동을 널리 선전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전대를 조직하였다.¹⁴⁾ 이러한 선전대 조직과 맞물려 안창호는 선전활동에 비행기가 유용하다고 판단하고 구입을 시도하였다.¹⁵⁾

안창호는 1920년 1월 신년 벽두부터 국무총리 이동휘를 비롯한 임정 요인들과 상의한 후 비행기 구입에 착수하였다. 구입 목적은 선전문을 대량으로 살포하여 인심을 대격발하겠다는 것으로¹⁶⁾

13) 국회도서관 편,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108쪽.

14) 선전대는 선전위원장 안창호를 중심으로 정인과가 선전대 주임으로, 손두환, 김태연, 김석황, 임득산, 권태용이 선전위원으로, 김병조가 이사원으로 각각 참여하였다.

15) 그 외 안창호가 비행기 구입을 시도한 배경에는 레드우드 비행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한인 청년들(이용근·장병훈·오립하·이조·이용선·한장호)과 노백린의 군단 설립에 적극 협력한 월로스 지역 한인농업실업가(김중립·이재수·신광희·윤용호·마춘봉·이운경)들이 모두 홍사단원이어서 안창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홍선표, 앞의 글, 23쪽)

16) 『도산일기』 1920년 5월 10일, 도산기념사업회 편, 『안도산전집』 중, 범양사,

「대한민국 임시정부시정방침」의 내용과 유사하다. 즉, 전투용이 아닌 독립군 단체나 동포사회와의 연락을 신속히 수행하거나 선전 수단으로써 비행기를 구입하겠다는 것이었다. 1920년 1월 14일 안창호는 영자신문 『大陸報』의 상해주재 미국인 기자 에번츠와의 만남에서 비행기 구입의 방도를 처음으로 문의하였다.¹⁷⁾ 이후 안창호는 黃鎭南에게 미국인을 통해 비행기 구입과 비행사 고용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고,¹⁸⁾ 재무차장 윤현진에게 비행기 구입 경비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¹⁹⁾ 다행히 비행사는 중국 비행기계창에서 일하는 미국인 에드먼이 임시정부를 돕겠다고 나서서 확보할 수 있었다.²⁰⁾ 그런데 구입할 비행기의 성능이 150마일 정도이고 이보다 성능 좋은 비행기는 구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안창호는 비행기 구입문제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않았다.²¹⁾

안창호가 비행기 구입을 단념한 또 다른 이유에는 경제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 임정의 재정상태는 재무차장 윤현진이 1920년 1월부터 안창호에게 임정의 재정상황이 극히 곤란하다고 말하고 그 대책을 논할 만큼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²²⁾ 1920년 2월 19일과 5월 7일 최동오를 만난 자리에서 안창호는 비행기 구입 경비 조달 문제를 상의하면서 천도교를 통한 조달 방법을 협의하였으나 여의치 않았다.²³⁾ 임정의 재정 궁핍 상황의 원인을 보면 이승만이 구미 위원부를 설립한 후 독립공채 발행을 추진하면서 대한인국민회의 애국금 수합활동과 충돌을 일으켜 미주지역의 재정모금 실적이

1990, 310쪽.

17) 『도산일기』 1920년 1월 14일, 같은 책, 214쪽.

18) 『도산일기』 1920년 1월 15일, 1월 16일, 같은 책, 215쪽, 216쪽.

19) 『도산일기』, 1920년 1월 22일, 같은 책, 225쪽.

20) 『도산일기』, 1920년 2월 2일, 같은 책, 237쪽.

21) 『도산일기』 1920년 2월 15일, 2월 17일, 같은 책, 248쪽, 250쪽.

22) 『도산일기』 1920년 1월 16일, 2월 16일·17일·27일에 의하면 윤현진은 안창호를 찾아와 여러 차례 재정 궁핍 상황을 설명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였다.

23) 도산기념사업회 편, 『안도산전서』 중, 범양사, 1990, 252쪽, 306쪽.

원활하지 않았다. 거기다 국내에는 3·1운동이 발발한 지 1년이 지나면서 독립운동의 열기가 식은 데다 일본 경찰의 탄압이 가중되어 모금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²⁴⁾ 이런 연유로 안창호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행기 구입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었다.

안창호는 비행기 구입 문제 외에 한인 비행사를 양성하는 일에도 남다른 애착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920년 1월 29일 李錫이 비행기 항해술 공학 공부를 위해 도미 유학하려는 자가 있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자 안창호는 진력 주선해 주겠다고 약속했다.²⁵⁾ 이석이 안창호에게 도미 유학을 주선한 인물은 金公緝으로 추정된다.²⁶⁾ 2월 16일 김공집은 이석을 통해 안창호에게 航海學을 공부하고 싶다고 전했는데 안창호는 힘껏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²⁷⁾ 김공집(1895.10.25~1927.8.31; 자는 世錚)은 평북 정주 출신으로 1912년 오산학교를 졸업한 후 일본 동경과 중국 각지를 유람하며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다 3·1운동 직후 한성정부가 조직되자 13도 간부로 활동 중 일제의 검거령을 피해 상해로 망명한 인물이었다.²⁸⁾ 그 외 1920년 2월 18일 朴賢煥은 안창호에게 비행 학습문제를 갖고 도움을 요청하였다.

안창호는 1920년 2월 19일 국무원 참사 金弘敍에게 광동정부 법무총장 徐謙을 상대로 비행 및 항해를 위한 육·해군의 학교에 한국인 학생의 유학 여부를 알아볼 것을 지시하였다.²⁹⁾ 2월 24일

24) 주요한, 『안도산전서』(상)-전기편-, 범양사, 1978, 235쪽.

25) 『안도산전서』 중, 253쪽.

26) 1920년 3월 8일 안창호를 만난 김공집은 미국에 유학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27) 『도산일기』 1920년 2월 18일, 같은 책, 252쪽.

28) 이후 김공집은 박태하와 함께 1925년 모스크바 항공학교에서 공부하고 1927년 7월 졸업하였다. 그리고 상급학교에 진학해 모스크바 근교 셸프호프시에서 비행훈련 도중 추락사하였다. 김공집에 대해선 박환, 『러시아한인민족운동사』(탐구당, 1995) 참조.

29) 『안도산전서』 중, 253쪽.

김홍서는 안창호에게 서검의 답신을 전하면서 수일 내에 중국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한인들도 무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음을 전했다.³⁰⁾ 안창호의 주선 노력에 힘입어 1920년 3월까지 비행술을 비롯해 항해학술과 육군학 등의 공부를 위해 광둥으로 파송할 인원은 김공집·박현환 등 20명이었다. 이 가운데 14명은 1920년 3월 12일까지 이미 파송하였고 나머지 6인은 곧 파송할 계획이었다.³¹⁾

나. 월로스 비행학교의 설립과 의미

1916년 12월부터 하와이 호놀룰루에 정착해 박용만과 함께 대조선국민군단의 군사운동에 참여하고 『태평양시사』를 발간한 노백린은 3·1운동 직후 각지에서 탄생한 임시정부와 1919년 9월 상해 통합 임시정부에서도 군사 분야의 책임자인 군무총장에 선임되었다. 이렇게 된 데는 구한말시기부터 정통 무관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으로 누구보다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군무총장의 직임을 다하고 독립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1919년 10월 1일 하와이를 떠나 미국 본토 순행을 시작하였다.

노백린은 미국 본토 순행을 통해 독립전쟁론을 설파하였고 재미한인들은 이러한 그의 주장을 적극 호응하였다. 이런 호응 속에 그는 군무총장의 명의로 1920년 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 포고」 제1호를 공포하고 2천만 남녀는 일인까지 조직적이고 통일적으로 ‘光復軍’ 되기를 명세하고 결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의 호소에 크게 감응한 김종립·이재수·신광희 등은 노백린의 군사활동을 돕기로 결행하고 1920년 2월 20일 마침내 캘리포니아 주 월로스에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³²⁾

30) 『안도산전서』 중, 257쪽.

31) 「도산일기」 1920년 3월 12일, 『안도산전서』 중, 270쪽.

32) 월로스 비행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선행 연구로는 홍선표, 「미주한인의

육군 무관으로 활동한 노백린이 군사 경험이 전혀 없는 비행학교를 설립한 데는 미주한인들의 준비된 역량이 있는 때문이었다. 먼저 1919년 5월 국내 3·1운동의 소식에 충격 받은 한인 청년들은 독립의 대사업을 이루기 위해 새로 건설한 임시정부에 혈성을 다해 충성할 것을 맹세하고 학술 또는 군사상의 기예를 배워 독립운동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청년혈성단을 만들었다.³³⁾ 청년혈성단에는 한인 청년 23명이 참여하였는데 이 가운데 이용근·이용선·이초·장병훈·한장호는 레드우드비행학교에 입학해 비행술을 배웠고 최자남은 미 해군 비행학교에 입대하였다. 이들의 비행학교 입학은 독립의 대사업을 위해 군사상의 기예를 배운다는 청년혈성단의 취지에 따른 것이었다.

다음으로 미주한인사회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새로운 군사 전술로 부상한 비행전술을 높이 평가하고 한인들에게 비행사 되기를 장려한 점이다. 대한인국민회 기관지 『신한민보』는 사실을 통해 공군력이야말로 근대 군사학 가운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일본의 공군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먼저 한인 비행사를 양성한다면 장차 독립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³⁴⁾ 1919년 9월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장에 취임한 윤병구는 취임 연설에서 다음의 내용으로 비행기와 관련한 기술과 전략을 배울 것을 주장하였다.

청년 중 자격있는 자들을 우선 비행기 제조학과 무선전신학, 그리고 최근의 전술전략을 배우도록 장려할 것과 여자들은 간호부과를 배우도록 장려해야 할 것.³⁵⁾

군사운동-노백린과 한인비조종사양성소」(『미주한인사회와 독립운동』1, 박영사, 2013), 홍윤정, 「독립운동과 비행사 양성」(『국사관논총』 107집), 한우성·장태한, 『1920, 대한민국 하늘을 열다』(21세기북스, 2013) 등이 있다.

33) 『신한민보』 1919년 5월 31일, 「청년혈성단취지서」.

34) 『신한민보』, 1920년 6월 4일, 「한국독립과 비행술」.

이처럼 3·1운동 이후 고조된 독립운동의 열기 속에 미주한인사회에는 비행사 양성은 앞으로 독립전쟁을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최신 군사전술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리고 실제 한인 청년들은 레드우드 비행학교를 비롯해 미국 각지의 비행학교에 입학해 비행술을 배우고 있었다. 이로 보면 비행학교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은 어느 정도 구비하고 있었던 셈이다. 여기에다 쌀 농사로 부를 축적한 김종립을 비롯한 북가주 지역의 한인들은 노백린에게 비행학교 설립에 따른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함으로써 마침내 월로스에 비행학교가 설립될 수 있었다.

비행학교는 2대의 비행기를 마련하고 레드우드 비행학교 교관 브라이언트를 초빙하는 등 본격적인 비행훈련에 착수하였다. 그리고 레드우드를 비롯해 미국 각지의 비행학교에서 수학한 한인 비행사들을 교관으로 활용하였다. 이 곳에 참가한 학생 수는 설립 초기 24명이었고,³⁵⁾ 7월 비행사양성소 개소식 때에는 25명 정도였다.

노백린은 비행기를 구입해 본격적인 비행술을 가르칠 때까지 육상훈련을 전담하였다. 그리고 1920년 7월 5일 ‘대한인비행가양성소’의 이름으로 성대한 개소식을 거행한 후 그는 상해 임정으로 복귀하였다.

노백린이 상해로 떠난 후 김종립과 비행학교 관계자들은 대한인국민회 중앙총회 총무 광림대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해 비행가양성소 운영의 책임을 맡겼다. 7월 25일 김종립·송덕용·강영문·이재수·신광희 등은 ‘비행가양성사’를 만들고 향후 2년 동안 안정적으로

35) 『신한민보』, 1919년 9월 30일, 「중앙총회장 윤병구 씨의 행정에 관한 의견」.

36) 『신한민보』 1920년 3월 19일, 「비행학교 생도의 집합」. 실제 명단 중에는 4명의 이름이 빠져 있다. 그런데 1920년 5월 노백린이 이동휘에게 보낸 서신에 따르면 한인 청년의 수가 3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자8093, 「노백린이 이동휘에게 보낸 편지(1920.5.19)」) 이로 보면 처음 24명으로 출발하였으나 3월 이후 군단에 참가한 한인 청년들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비행훈련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으로 후원하기로 하였다. 비행가양성사에 참여한 대부분은 윌로스 인근의 북가주 지역에서 쌀농사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1920년 10월 북가주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한인들의 쌀농사 사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연유로 그동안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김종립을 비롯한 비행가양성사의 회원들은 더 이상 비행훈련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었다.

비행가양성사 총재로 활동하며 비행학교 운영의 실질적인 후원자였던 김종립은 1921년 4월 박희성의 비행기 추락 소식을 담은 「청원서」를 대한인국민회 북미지방총회장 최진하에게 보낸 후 비행가양성소를 폐쇄하였다.³⁷⁾ 독립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노백린을 중심으로 야심차게 설립했던 비행학교는 노백린의 상해행 이후 일어난 자연 재난으로 막을 내렸다.³⁸⁾

윌로스에서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경험과 그 영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정책 수립이나 해방 후 공군 창설면에서 볼 때 몇 가지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담겨있다. 첫째, 임정을 대표한 군무총장 노백린의 주도과 재미한인들의 협력과 성원 속에 외부의 도움 없이 순수 자력으로 비행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한 점이다. 둘째, 비행학교 설립과 운영의 실제 경험은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임시정부가 군사정책을 수립할 때 공군 건설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셋째,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의 역사적인 기원을 만들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의 창설이 해방 후 일부 항공인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윌로스에서 시작한 비행학교의 역사적 뿌리에서부터 출발하였음을 눈뜨게 해 주었다.

37) 『신한민보』 1921년 5월 5일, 「비행학생 도움시다」.

38) 자연 재난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이 주된 요인이었지만 임시 감독이었던 광림대가 미 군사학교 입학에 위해 떠나는 등 노백린의 상해행 이후 그와 같은 지도력을 발휘할 인물이 뒷받침 되지 않은 것도 주요 요인이었다.

3. 김구의 공군 건립 구상과 공군설계위원회의 조직

가. 김구의 공군 건립 구상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는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을 크게 변화시켰다. 일제의 만주침략과 상해 침공으로 중국인의 자존심이 크게 상해 있던 차에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결성해 거행한 윤봉길 의거는 중국국민당 남경정부와 중국인의 마음을 감동시켜 한국독립운동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방침으로 전환시켰다. 1931년 9월 18일 발발한 만주사변 직후 남경정부 중앙당 조직부장 陳果夫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무부에서 활동하며 국민당정부의 연결 통로 역할을 했던 박찬익을 불러 한인 독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여 한중 연합의 항일전 수행을 위한 실천 방안 수립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³⁹⁾ 이후 그 때의 제안은 진척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런 차에 이봉창 의거와 윤봉길 의거가 일어나자 남경정부는 적극적인 태도로 한국독립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남경정부는 국민혁명군을 비롯한 각 방면에서 다수의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수용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통해 일본군과 일제의 침략기관에 침투시켜 정보 수집과 파괴 공작을 전개한다는 원칙을 수립하였다.⁴⁰⁾

중국국민당 남경정부는 진과부를 중심으로 陳立夫·蕭錚·貢浦誠 등으로 하여금 한인애국단을 이끌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무공작을 수행하던 김구에 대한 지원책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다. 당시 강소성 주석의 직책을 갖고 있던 진과부는 중국국민당을 대표해

39) 소쟁, 「장개석, 김구 그리고 나」, 『월간조선』, 1985년 1월호, 424쪽.

40) 「願祝同證言」, 「朝鮮義勇隊의 第3戰區工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중국 인사의 증언』, 박영사, 1983, 37쪽.

김구를 비롯한 임정을 지원하는데 헌신한 인물로⁴¹⁾ 소쟁으로 하여금 김구를 가흥으로 피신시키고 동북의용군후원회 회장 褚輔成으로 하여금 김구를 지원하도록 조치하였다.

남경정부의 호의에 대해 김구는 소쟁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남경정부 군사위원회 위원장 장개석과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과, 둘째,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사 양성의 일환으로 남경에 기병학교 설립을 건의하였다.⁴²⁾ 소쟁은 김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1932년 8월 歐陽格이 한구에 가서 장개석을 만나는 것을 기회로 김구의 제안을 장개석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하였다. 김구가 기병학교 설립을 제안한 것은 동북지역에 집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을 대상으로 기마별동대를 조직해 조선 경내로 진입하면 국내 동포들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항일투쟁의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⁴³⁾ 그런데 1932년 8월 10일 남경정부가 보낸 암호 전보에서 김구의 기병학교 설립 계획은 무모하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대신 김구의 면담 요청은 받아들여 마침내 장개석과의 만남은 성사되었다.⁴⁴⁾

1933년 5월 김구는 안공근·엄항섭·박찬익과 함께 남경의 중앙육군군관학교에서 장개석과 회담하였다. 회담의 중국측 인사로는 진과부·소쟁·공패성 등이 배석하였다. 김구는 피난 중인 임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고 장개석은 김구에 대해 매월 생활보조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5,000원의 경상비 지원, 특별 용도의 사업비에 대한 지원, 임정 요인의 안전 문제 및 사무실 마련에 대한 지원 등을

41) 胡春惠 저, 신승하 역, 『중국 안의 한국독립운동』, 단대출판부, 1987, 78쪽.

42) 「김구 주석의 기병학교 설립 건의에 관한 건(1932. 8. 10)」,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9권(군무부), 2006, 113쪽.

43) 「한국의 광복을 위한 중국정부의 지원에 대한 회상」,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25(중국의 인식), 2008, 197쪽.

44) 「蕭錚證言: 중국국민당과 김구」, 『한국독립운동사자료집: 중국 인사의 증언』, 151쪽.

약속하였다.⁴⁵⁾ 그 외 김구는 장개석에게 대대적인 특무공작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중간에서 진과부가 특무공작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 있지만 군인양성은 독립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군인양성으로 변경해 지원을 요청했다.⁴⁶⁾ 임정이 처한 현실 여건 때문에 차선책으로 특무공작을 제안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군인 양성의 방향으로 전환된 것은 김구에게 더할 나위 없는 최선책이었다.

이후 김구는 장개석의 지원 약속에 따라 진과부 등 중국측과 협의하여 한인특별반 개설을 합의하였다. 한인특별반이란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제2총대 제4대대 육군군관훈련반 제17대’를 말한다. 낙양분교는 기존 16대까지 편성되어 있었는데 17대를 새로 편성해 한인특별반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었다. 한인특별반은 1934년 2월 92명이 첫 입교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운영되었다. 이로써 김구는 남경정부의 재정지원과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 내에 한인특별반 운영을 통해 항일투쟁의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었다.

그런데 김구의 관심은 지상 훈련에 중점을 두는 육군 군사 양성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다. 김구는 1934년 10월 30일자로 소쟁(호:靑萍)에게 보낸 서신에서 비행기 조종사로 활동하는 한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비행기 조종사 이군의 일은 요즘 방도가 생겼습니까. 이 일이 비록 작은 일이지만 저의 신용문제와 관련이 크기에 빨리 알맞은 위치에 배정시키기를 바랍니다.⁴⁷⁾

45) 한상도,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 문학과지성사, 1994, 309쪽.

46) 김구,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1997, 355~356쪽.

47) 「김구가 靑萍 蕭錚에게」, 『백범 김구선생의 편지』, 나남출판, 2005, 36쪽.

앞에서 김구가 언급한 ‘이군’이란 두 사람을 지칭할 수 있다. 먼저 李相國(이명: 田相國)이다. 그는 1908년생으로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출신이며 1934년 당시 중국국민당 남경정부 군사위원회 소속 항공위원회의 소좌 계급 비행사였다.⁴⁸⁾ 다음으로 李永祿(‘李英茂’의 이명, 별명: 靑邱)이다. 그는 1894년 2월 17일생으로 경북 칠곡군 지천면 출신이며, 운남 항공학교 1기 졸업생이고 이상국과 함께 1934년 남경정부 항공위원회의 비행사로 활동하고 있었다.⁴⁹⁾ 두 사람 중 어떤 인물을 가리키는지 확실하지 않다.⁵⁰⁾ 김구가 항공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한인 비행사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한 배경은 장차 임정 자체의 비행대, 즉 공군력을 구비할 귀중한 인적 자산으로 간주한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한인 비행사에 대한 김구의 관심은 임정 자체의 공군 건립의 구상 단계로 발전하였다. 1935년 10월 1일자로 진과부가 소쟁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에서 김구의 구상이 잘 나타난다.

청평 형님, 김군[김구]의 고려는 참으로 옳은 것입니다. 동생[陳立夫]이 돌아오길 기다려 다시 토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사는 일은 그대로 처리하십시오. 다만 비행인원들은 빨리 훈련시키는 것이 좋을 듯하고

48) 朝鮮總督府警務局 編, 『國外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1934.6), 1934. 288쪽. 1928년 10월 처음으로 공군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군관학교 안에 항공대를 설립한 남경정부는 1929년 6월 항공반으로 바꾸어 운영하였다. 1931년 4월에는 항공반을 중앙군관학교에서 분리해 군정부의 항공서로 귀속시키고 동년 7월 1일 중앙군관학교 항공반을 군정부 중앙항공학교로 개명하였다. 일본의 만주침략(1931. 9. 18)과 상해침략(1932. 1. 28) 이후 항공국방의 중요성이 크게 제고되자 남경정부는 1932년 8월 군정부의 항공서를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고, 1934년 5월 항공서의 명칭도 항공위원회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1934년 9월 또는 10월이면 남경정부의 비행사들은 항공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할 때이다.

49) 같은 책, 305쪽.

50) 그 외 李士英이란 한인 비행사가 있었는데 어떤 인물인지 드러나 있지 않다. 崔鳳春의 논문 「民國時期 中國空軍航校韓籍飛行員考述」(『朝鮮·韓國歷史研究』 14, 2013, 302~303쪽)에는 이사영이 이영무의 이명이라 하였으나 확실하지 않다.

경비는 우리 쪽에서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⁵¹⁾

소쟁은 위의 서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시 부연 설명하였다.

按: 이 서한은 중화민국 24년 10월 1일에 보낸 것입니다. 여기서 ‘김군’은 김 백범 선생을 가리킵니다. 이때 김 선생은 비행기를 구입해 공군 건립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진과부 선생이 그 일을 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비행 인원을 훈련시키라고 독촉하고 방법을 강구해 경비를 대주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서한 속에서 말한 동생은 陳立夫 선생을 가리킵니다.(소쟁)⁵²⁾

이상의 서신 내용을 볼 때 김구는 진과부와 의 만남에서 중국군으로 활동 중인 한인 비행사를 중심으로 임정 자체의 비행대, 즉 공군 건립의 구상을 밝히고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진과부는 공군 건립 이전에 비행사를 양성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 보고 이 일을 위해 향후 지원을 강구해 보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의 기록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비행사를 양성해 공군을 건립해 보겠다는 김구의 계획은 구상으로만 그친 것 같다. 남경정부가 임정의 공군 건립을 위해 비행사를 양성하고 지원해 줄 만한 자체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국민당 남경정부는 일제 침략에 맞설 군사력이 부족해 한국 독립을 위해 공군력을 배양시켜 줄 만큼의 능력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였다. 1931년 9월 18일과 1932년 1월 28일 일본의 만주 및 상해 침략 때 일본이 처음으로 비행기를 이용한 전략 폭격을 시도하자 중국인들은 공군력에 대한 공포감과 위력을 체험하였다. 이에 따라 항공구국을 위한 중국인의 비행기 헌납운동이 복건성 장주에서 복건항공구국회(1931.10.8)가 결성된 것을 비롯해

51) 「김구의 공군 건립 요청」, 『백범 김구선생의 편지』, 37쪽.

52) 위와 같음.

1932년 3월부터 광둥 및 중국 각지로 확산되었다. 특별히 일본으로부터 상해 침공을 당한 상해 시민들은 1932년 7월 14일 상해 각 단체 구국연합회 항일선전주 행사에서 ‘상해호’ 비행기 헌납을 결의하고 1933년 6월 1일 첫 번째 비행기 기증식을 성대히 거행하였다. 이처럼 중국 각지에서 전개된 항공구국운동의 영향은 비행기 헌납 운동으로 본격화하였다.⁵³⁾

1932년 1월 일본의 상해 침공 직후 군사위원장 장개석은 “국방의 공고화 여부는 거의 전적으로 공군력에 달려있다” 하고 항공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활동에 착수하였다.⁵⁴⁾ 남경정부는 항공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1932년 5월 남경에 수도항공공창을 설립하여 1934년 처음으로 ‘자바호’ 정찰기 1대를 완성하였다. 동년 8월 軍政部の 항공서를 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 항공 사무를 통할적으로 관리하고, 1932년 9월 항주의 명교에 중앙항공학교를 설립해 외국인 비행교관을 통한 체계적인 비행사 양성에 착수하였다.⁵⁵⁾ 1933년부터 장개석은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아 공군건설 3개년 계획을 제정하고 항주에 항공총교를 비롯해 낙양·광주·장사에

53) 1932년부터 1936년 장개석의 50세 생일을 맞이하여 전개된 ‘賀壽獻機’ 운동 전까지 4년간 비행기헌납운동의 결과는 총 144대에 이르렀다. 1936년 말 ‘하수현기’ 운동 때에는 128대의 비행기를 구입하였다. 여기에 대해선 李雪, 「1931~1937年 “航空救國” 運動探析」(雲南大學 석사학위논문, 2014. 5) 참조.

54) 항공건설의 중요성을 역설한 장개석의 연설문은 『國民與航空』라는 책으로 엮여 출판되었다. 1934년 5월 항공서를 항공위원회로 개명할 때 장개석은 스스로 위원장을 겸임하였고 또한 명교의 중앙항공학교 교장직도 겸임하는 등 항공구국운동의 선봉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부인 송미령 또한 항공건설에 열정이었는데 그녀의 유일한 공직은 항공위원회 비서장 및 상무위원이었고 각지를 순행하며 27차례나 항공구국 연설을 전개하였다.

55) 중앙항공학교의 설립은 항공건설의 열정이 많았던 송자문이 1932년 1월 28일 일본의 상해 침공 직후 주중미대사관 무관에게 중국 공군의 건립을 위해 미국이 도와줄 것을 제안한데서 비롯하였다.(李雪, 「1931~1937年 “항공구국” 운동탐석」, 운남대학 석사학위논문, 2014. 5, 62쪽) 이후 중앙항공학교에 필요한 비행교관 선발 책임을 맡은 미국인 첼놀트(Claire Lee Chennault: 1893~1957)는 보정항공학교 출신 최용덕을 10명의 비행교관 중 1인으로 선발하였다.

항공학교 분교를 설립해 중국 공군 건설에 박차를 가하였다.⁵⁶⁾

이로 볼 때 일본의 만주 및 상해 침략 직후 중국은 비행기 헌납운동의 전개, 체계적인 비행사 양성과 비행기 제작 착수 등을 통해 이제 막 본격적으로 공군력을 향상시킬 때였다. 김구가 한국 독립을 위해 공군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남경정부측에 의사를 타진한 배경에는 중국 내 확산된 항공구국운동의 영향이 적지 않게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남경정부가 자체의 공군력 배양에 전념할 시점에서 임정의 공군 건설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런데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김구와 진과부의 관계가 1938년 5월 장사에서 발생한 李雲煥의 김구·현익철 저격사건을 계기로 끝나고, 중국국민당 중앙당 비서장 吳鐵城과 조직부장 朱家驊가 대신하면서 김구가 공군 건설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입장이 되지 못하였다.

공군 건립 계획은 비록 구상단계에 그쳤지만 김구는 독립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군력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인식하고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한 점은 이후 중경에 정착한 직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김구 주석의 주도하에 공군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나. 한국광복군의 창설과 공군설계위원회의 조직

중경에 정착한 임시정부는 3당 통합으로 결성된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결속을 강화하는 한편 독립전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독자적인 힘으로 1940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임시정부는 1919년 9월 20일 공포한 「대한민국임시관제」 중 대본영직제를 폐지하고 군사의 최고 통수권을 가진 「대한민국민국

56) 吳布林·魏曉立, 「中蘇·中美聯合抗戰的中國空軍」, 『湖南城市學院學報』, 24권 제5기, 2003. 9, 92쪽.

임시통수부관제」(1940.11.1)를 제정하였다.⁵⁷⁾ 신설된 통수부는 임정 국무위원회의 주석이 그 직권을 행사하도록 해 임정 수반을 중심으로 한 일관된 군사지휘체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1941년 11월 28일 제정한 「한국광복군공약」에서 무장으로 왜적의 침탈세력을 박멸하기 위해 주의와 사상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 남녀 모두는 군인이 될 의무와 권리가 있다고 함으로써 독립전쟁을 위해 한국인이면 누구나 군인이 되어야 한다고 공포하였다.⁵⁸⁾

한국광복군은 창설 직후 중국측의 부단한 간섭으로 한 때 자주성에 큰 흠집을 남기기도 하였지만 조선의용대를 흡수하며 각 지대를 확장 발전시켰다. 1942년부터 좌우 세력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으로 결집되자 임정은 독립운동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자 장차 독립될 자주 국가에서 국군의 모태로써 그 위상과 위엄을 갖추었다.

중경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3년 3월 3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잠행관제」를 제정해 군무부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할 때 다음과 같이 처음으로 공군을 명시하였다.

제1조 군무부장은 육·해·공군 軍政에 관한 사무를 掌理하며 육·해·공군은 군속을 통할하고 소관 각 관서를 감독함.⁵⁹⁾

그런 다음 군무부 내 군사과에 “육·해·공군 建制 及 開平時 전시 편제와 계엄 연습 검열에 관한 사항”(1항)과 “각 군 비행대에 관한 사항”(3항)을 규정하여 공군 편제와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잠행관제」에서 나타난 공군의 편제는 1919년 통합 임정 직후 발표한 「대한민국임시관제」에 육·해군만 언급하고

57) 한시준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법령집』, 308쪽.

58) 같은 책, 312쪽.

59)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7호(1943. 4. 15); 군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6, (임시의정원V), 2005, 80쪽.

그 안에 각각의 비행대를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때 놀라운 발전이었다. 이것은 공군의 존재가 장차 독립전쟁의 수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장차 군의 기본 골격을 육·해·공군으로 삼겠다는 의미였다.

임시정부 내 공군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고조될 때 1943년 7월 6일 개최한 국무위원회는 최용덕을 총무처 처장에서 참모처 처장으로 보직 이동시켰다.⁶⁰⁾ 당시 최용덕은 중국국민당 정부군의 공군 소장으로 成都飛行隊에서 활약하며 한국광복군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이런 그를 참모처 처장으로 보직 이동한 것은 군사 실무의 중책을 맡기겠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참모처장에 선임된 최용덕은 같은 날(7월 6일) 국무위원회에 공군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공군 건설을 공식적으로 건의하였다.⁶¹⁾ 국무위원회는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군무부의 직할 아래에 ‘공군설계위원회’를 두고 장차 공군 건설을 계획해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⁶²⁾ 동년 8월 19일 국무위원회는 군무부장 조성환을 통해 제출한 「공군설계위원회조례」를 약간 수정하여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이를 공포하였다.⁶³⁾ 그리고 공군설계위원으로 다음의 인물을 선정하였다.

공군설계위원: 최용덕, 윤기섭, 김철남, 이영무, 김진일, 권기옥, 이연호⁶⁴⁾

동년 9월 28일 미국 유학생 출신 權一重을 추가 임명함으로써 공군설계위원의 수는 모두 8명이 되었다. 이들 중 중국 공군에서

60) 최용덕은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결성되는 1940년 9월 참모장 밑의 비서처 처장이었다. 이후 그는 1942년 총무처 처장, 1943년 참모처 처장으로 각각 보직 이동되었다.

61) 「공군건설계획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8호(1943. 8. 4).

62) 위와 같음.

63) 「공군설계위원회조례통과안」; 「공군설계위원회조례를 제정하여 자에 차를 공포함」,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9호(1943.10.8).

64) 「공군설계위원선임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9호(1943. 10. 8).

비행사로 활동한 인물은 최용덕·이영무·김진일·권기옥 등 4명이었고 윤기섭은 임정의 군무부 차장으로서, 김철남과 이연호(원명은 李相定: 권기옥의 남편)는 중국군에 군적을 둔 입장에서 각기 항공 분야에 조예가 깊은 경력으로 참가하였다. 이들 가운데 공군 업무에 가장 경력이 뛰어난 최용덕은 부주임에 선임되어 실제 운영의 책임을 맡았다.⁶⁵⁾

한편 같은 날(9월 28일) 국무위원회는 당초 구상한 ‘공군건설위원회’를 ‘공군설계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었다.⁶⁶⁾ 이것은 8월 19일 제정한 「공군설계위원회조례」의 명칭에 걸맞게 조정할 필요성과, 공군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당장 ‘건설’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과 사정을 감안해 계획단계인 ‘설계’가 낫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1943년 8월 19일 제정 공포한 「공군설계위원회조례」는 다음과 같다.

- 제1조 공군설계위원회는 군무부 관할하에 치함.
- 제2조 공군설계위원회는 하열 사항을 연구계획함.
 - (1) 공군건설에 관한 일절사항
 - (2) 방공건설에 관한 일절사항
 - (3) 일반항공사업에 관한 일절사항
- 제3조 공군설계위원회는 주임위원 1인, 부주임위원 1인, 위원 약간인, 간사 약간인을 치함.
- 제4조 주임위원은 군무부장이 겸임하고 부주임위원과 위원은 군무부장이 천거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주임위원이 임명함.
- 제5조 주임위원은 회무를 지휘 감독함.
- 제6조 부주임위원은 주임위원을 보좌하며 주임위원이 유고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함.

65) 앞과 같음.

66) 「공군위원회명칭통일안」,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9호(1943. 10. 8). 이것은 당초 국무위원회가 ‘공군 설계’로 출발하지 않고 ‘공군 건설’의 입장에서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제7조 위원은 주임위원의 지휘를 승하여 제2조에 규정한 회무를 분담 집행함.

제8조 간사는 주임위원의 명을 승하여 문서·회계·서무 등 사무를 분장함

제9조 처무규정은 별정함.

제10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함.⁶⁷⁾

이상의 조례를 보면 공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이나 방침을 제시하기보다 공군 건설의 전단계인 설계를 담당할 조직과 인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공군 건설의 영역뿐만 아니라 방공건설과 일반 항공사업까지 다루겠다고 한 것은 항공 영역의 전 분야까지 폭넓게 연구해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의미였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공군 건설만을 계획하고 만든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공군 건설을 위한 계획 수립을 처음으로 본격화 하였다는 점에서 「공군설계위원회조례」는 공군 창설의 역사상 선구적인 업적으로 평가된다.

임시정부는 공포한 「공군설계위원회조례」의 추진을 위해 임정발 제128호(1943.10.12)로 법률추인안을 임시의정원에 제출하였다.⁶⁸⁾ 임시의정원은 1943년 11월 20일 회의에서 의회의 승인을 필요하지 않고 정부 직권으로自行할 수 있으므로 반환하기로 결의하였다.⁶⁹⁾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직권으로 공군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67)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79호(1943. 10. 8.).

68) 「법률추인안에 관한 건」,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6권(임시의정원 V), 2005, 76쪽.

69) 「법률추인안 반환」, 『대한민국 임시정부공보』 제80호(1944. 4. 15).

4. 한미 연합 공군의 건설계획과 추진

가. 한국광복군 비행대 편성과 공군건설개시공작

1943년 태평양전쟁의 전세가 미국 우위로 돌아서고 연합군이 각지에서 항일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자 임시정부는 중국군뿐만 아니라 다른 연합군과의 제휴 내지 공동작전을 통한 군사계획을 준비하였다. 1943년 10월 광복군총사령부의 이청천·김원봉·이복원 등은 새로운 군사정책을 작성하여 제35차 임시의정원 회의에 제출해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중·미·영·소 등 연합국에 군수 및 경비 등의 차관을 계획하고 각종 특수 군사교육에 관한 문제를 교섭한다는 것이었다.⁷⁰⁾

1943년 임정은 연합군 가운데 영국군과 본격적인 공동 항일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겨울부터 인도주둔 영국군총사령부의 공작인원 파견 요청을 수락한 조선민족혁명당은 崔省棼와 周世民을 인도에 파견하고 있었다. 파견 성과에 만족한 영국군이 지속적인 파견을 요청하자 1943년 5월 조선민족혁명당은 버마전구 영국군 총지휘부와 군사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협정의 체결은 조선민족혁명당이 주도하였지만 조선의용대가 1942년 7월 한국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한 사항이어서 실행은 한국광복군총사령부가 담당하였다. 그리하여 제1지대 2명과 제2지대 7명 등 총 9명을 선발해 印緬戰區工作隊(대장 韓志成)를 편성해 1943년 9월 인도에 파견하였다.⁷¹⁾ 이들은 1944년 초부터 영국군과 일본군이 대접전을 벌였던 임팔(Imphal)전투와 1945년에 전개된 버마 총반격전에 참여해 일본군에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줌과 동시에 영국군의 대일

70)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편, 『독립운동사』 6, 독립군전투사(하), 1975, 487쪽.

71) 추현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2, 연세대출판부, 1972, 222~223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독립운동자료집-조소양편』 4, 1997, 182~185쪽.

작전 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⁷²⁾

이처럼 1942년 말부터 중국 외 연합군과의 공동 작전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제 공동작전을 시행한 임시정부 군무부는 1944년 4월 1일자로 「군무부공작계획대강」 13개항을 제정해 새로운 군사정책을 추진하였다.⁷³⁾ 주요 내용은 먼저 그동안 광복군의 자주성을 훼손한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를 취소하고 중국 당국과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할 것과 연합군과 공동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국내지하군 건립에 대한 연구계획 등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제8항에 “육·해·공군 건설에 관한 것을 연구 계획할 것”임을 명시하여 지금까지 논의해 온 공군 건설문제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정했다.⁷⁴⁾

한국광복군은 「군무부공작계획대강」을 바탕으로 실제적인 군사작전 계획으로 12개항의 「한국광복군건군 급 작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주요 방침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고 동야 영구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체 한국 동포를 동원하여 광복군을 확대하며 속히 동맹군과 배합 작전하여 일본제국을 격멸할 것.
2. 본 계획은 중·미 양방과 각별 협상하여 동의를 경한 후 축차 실시함.⁷⁵⁾

국내외 한국인 동포를 동원하여 한국광복군을 확대하고 신속히 연합국, 특히 중·미와 개별 협상을 갖고 합동 군사작전을 수립해 일제를 격멸하겠다는 것이다.

72) 한시준 편, 앞의 책, 267쪽.

73) 국사편찬위원회 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6(임시의정원Ⅱ), 2005, 152쪽.

74) 「군무부공작보고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9(군무부), 2006, 76~77쪽.

75) 「한국광복군건군 급 작전계획」(1944),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11, (한국광복군Ⅱ), 2006, 86쪽.

이러한 방침 속에 구체적인 진행 방법으로 제9항에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1. 중국 경내와 태평양 지구에서 각각 한국광복군 비행대를 조직하여 각지에 연락·운수급 盟空軍과 배합 작전함.
2. 중국 경내의 한국광복군 비행대는 현재 중국 공군에서 복무하는 한적 비행인원을 기초로 조직하고, 먼저 연락용 운수기 數架를 조치하여 한국광복군 소재 각지 연락과 兵員 수송을 담임함.
3. 비행 인원의 양성은 중·미 양방과 협상하여 양국 항공학교에로 광복군 총사령부에서 保送하는 청년을 입학시키여 훈련하도록 함.
4. 항공 인원의 양성에 따라 중·미 양국 정부로부터 각종 비행기를 租得한 후 한국광복군 비행대를 정식으로 조직하여 盟空軍과 배합 작전케 하되 적 점령구 급 한국 경내의 傳과 지하 軍間의 연락 원조를 주로 담임케 함. 단 광복군 비행대의 실력이 독립 작전을 수행키 불능한 때까지는 盟軍 비행대에 소속하여 그 지휘를 수하며 행동하되,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에서 수요하는 공중 연락과 兵員 수원에 관하여 盟國 공군이 이를 수송할 것.
5. 태평양구 한국광복군 파견 사령부 소속 비행대의 조직은 재미 한적 비행인원을 기초로 하여 이상 각항에 비조하여 행함.⁷⁶⁾

이를 보면 한국광복군은 중국과 태평양 지역에 비행대를 조직해 연합군과 공동 군사작전을 수행할 것이며, 중국 내 비행대는 현 중국 공군에서 복무 중인 한인 항공인을 이용하고 태평양지구는 재미 한인의 항공인을 이용해 조직한다. 앞으로 필요한 항공 인원은 한국광복군에서 선발한 청년을 중국과 미국의 항공학교에 보내 양성하고, 항공 인원이 양성되면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비행기를 빌려 한국광복군 비행대를 정식 조직해 연합군과 합동 군사작전을 수행한다. 단 한국광복군의 비행대 실력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합군의 비행대에 소속되어 그 지휘를 받아 행동한다는

76) 같은 책, 88쪽.

것이였다.

요컨대 중국과 미국의 도움을 받아 한국광복군 내 별도의 비행대를 만들어 장차 공군을 창설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이었다. 이 때 신설될 한국광복군의 비행대는 연락과 수송 임무에 주력하겠다고 함으로써 전투용 비행대로까지 발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동안 한국광복군은 설립 이후 중국 군사위원회 판공청이 1941년 11월 15일자로 통보한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에 의거 군사위원회에 예속되어 자주성과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였다. 임정은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 당국을 설득하였고, 그런 노력의 결실로 마침내 1944년 8월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를 취소시켰다. 이것은 한국광복군이 비로소 군사 자주권을 회복하였음을 의미하였다.⁷⁷⁾

군사 자주권의 확보는 한국광복군이 구상하고 계획해 온 연합군측, 미군과의 합동 군사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었다. 이에 따라 1944년 말경 한국광복군은 자체의 비행대 조직 구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군과의 합작을 통해 공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 현단계 공군건설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

제1 방침

- (1) 왜적의 무력세력을 근본박멸하고, 조국의 완전독립과 세계의 영구 평화를 쟁취하기 위하여 아국작전 행동을 반드시 미국과 절실히 합작하는 중, 무력 일부인 공군 인원의 훈련편대와 기계유· 등 보급도 역시 공동협상 진행하여 최단기간 내에 공군작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건군·건국 중 공군 기초를 확립할 것.

제2 지도요령

77)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는 1944년 8월에 취소되었으나 한국광복군이 완전한 군사 자주권을 회복한 때는 1945년 4월 4일 중국측과 맺은 새로운 군사협정인 「원조한국광복군판법」에 의거 1945년 5월 1일부터다.

- (2) 한국 공군 인원과 미국 공군 인원이 공동○기된 한국 공군훈련소를 상당한 지점(필리핀 등)에 설립할 것.
- (3) 盟軍 작전계획에 의하여 한국 공군 인원이 단기간내에 능히 훈련하여 공헌 있을 것을 주로 할 것.
- (4) 공군작전의 초기인 연락 급 통신공작으로 착수하여 미국 공군인원과 혼합 부대를 개시할 것.
- (5) 한국 항공대를 편성하여 미국 공군과 연합작전하여 한국광복군의 작전행동을 협조할 것.
- (6) 공군 통신의 제반 인재는 미국 협조로서 양성하여 공군 건설의 기초를 확립할 것.

제3 조성 인원의 來源

- (7) 미국 급 기타 동맹 등에서 복무하는 공군 인원을 집합할 것. 중국에서 복무하는 비행－崔用德·李英茂·鄭再燮·崔鐵城·權基玉, 기계－金震一·張聖哲·張基亨·李士英·康溫東·王英載
- (8) 미군 세력 범위내의 한적 授誠 혹 俘勇 인원 중에서 공군 합격자를 선거할 것.⁷⁸⁾

이를 보면 한국광복군은 현 단계의 공군 건설 시도는 장차 建軍과 建國 속에 이루어질 공군 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함이라 하였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는 필리핀에 한국 공군훈련소를 설립해 단기간 내 공군인원을 양성해 미 공군과 합동 군사작전을 전개하겠다고 하였다. 이는 그동안 연락과 수송 임무에 주력하기 위해 비행대를 조직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 전투작전에 투입할 공군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였다. 공군 통신의 인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 양성해 공군 건설의 기초를 확립하고, 공군 건설에 참여할 구성원은 우선 미국과 기타 연합국에서 군복무 중인 공군 인원과 미군 세력 범위 내 한인들 중에서 공군 합격자를 선발해 양성하는 것으로 하였다.

78) 「한국 현단계 공군건설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11(한국광복군 II), 89쪽.

임시정부가 중국 공군이 아니라 미 공군과 협력 병진하고 공동작전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을 수행하면서 세계적으로 최상의 공군력을 갖고 각종 전투에서 수많은 전과를 올리고 있는 미 공군의 실력을 높이 평가한 때문으로 보인다. 보다 근본적인 이면에는 미일전쟁 발발 이후 임정을 비롯한 한인들에게 미국이 한국 독립을 위한 최대의 기대국으로 부상한 데다 미국 또한 이전과 달리 적극적인 대한정책을 수립하면서 일본의 패망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한국인의 군사활용 문제에 관심을 보인 때문이었다.

임시정부가 1944년 당시 중국 공군에서 복무 중인 한인들을 조사한 바로는 비행조종사는 최용덕·이영무·정재섭·최철성·권기욱이고 기계사(항공 정비분야)는 김진일·장성철·장기형·이사영·염온동·왕영재 등으로 파악하였다.⁷⁹⁾

나. 공군 건설을 위한 대미 교섭

미일전쟁 발발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은 임정 승인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불가 입장을 고수하였지만 군사작전 면에서 한인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변화를 보였다. 1942년 초 미 국무부는 한인 전투부대 창설을 검토하였으나 중국전구 미군사령관 스틸웰(Joseph Stilwell)의 반대로 무산시킨 바 있었다. 1943년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 이승만은 미국 정부와 군부를 상대로 무기대여와 한인 전투부대 창설 등을 주장하며 활발히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자 미국무부는 전투요원이 아닌 첩보나 방첩 분야에서 한인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검토 단계로 발전시켰다. 1944년 1월 주중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미국 전략첩보국) 본부가 있는 곤명의 미국 총영사 랭던(William R. Langdon)은 미·영·중 3국의 후원 아래

79) 중국 공군이나 중국 각계의 항공분야에서 복무 중인 한인들의 수는 약 20~30명이었다.

‘한국국민군(Korean National Legion)’의 창설을 권고하는 의견서를 미 국무부 정치계획위원회에 제출하였다.⁸⁰⁾ 그는 한인부대를 결성해 중국에서 훈련시키고 미·영·중 3국 장교들의 지휘를 받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그의 제안을 고려하지 않았다. 1944년 중반 태평양지역 전황이 미국에게 급격하게 호전되자 국무부 차관보 벌(Adof A. Berle)은 미국 기동부대의 작전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첩보와 파괴활동 면에서 한인부대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여부를 조사할 것을 극동국에 지시하였다.⁸¹⁾ 이에 미국무부 극동국의 친한 인사 맥쿤(G. McCune)은 OSS가 한인들을 활용하여 첩보 및 파괴활동이나 군사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⁸²⁾ 그의 제안은 결과적으로 1945년 5월부터 중국에서 OSS가 한국광복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인 ‘독수리작전’을 수행하는 토대가 되었다.

임시정부는 미국의 대한정책 변화에 대응해 1944년 10월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을 통해 중국전구 OSS 비밀첩보과 책임자에게 한국광복군과의 군사 협작을 제의하며 OSS와 본격적으로 접촉하였다.⁸³⁾ 1944년 중반부터 한반도침투계획을 구상해 온 OSS는 한인들을 대일작전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서⁸⁴⁾

80) McCune to Berle(1944.7.31),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 자료25 (임정편 X), 1994, 424쪽

81) Berle to Grew(1944.7.21), 『미국무성 한국관계 문서(1941~1944)』 IV, 원주 문화사, 1993, 322쪽.

82)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5(임정편 X), 1994, 423쪽.

83) 이범석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OSS의 본부가 있는 곤명으로 가서 미군 제14항공대장 첨놀트(Claire Lee Chennault; 중국명 陳納德) 장군에게 제2지대가 對空활동과 첩보활동을 돕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계기로 상호 교섭이 추진되었다고 회고하였다.(이범석, 『광복군』, 『신동아』 1969년 4월호, 198쪽.)

84) 이 때 OSS가 중국전구에서 수립한 한반도침투계획은 ‘독수리작전(Eagle Project)’, 화북작전(North China Project)’, ‘불사조작전(Phoenix Project)’ 등이었고 워싱턴 본부에서는 ‘납코작전(Napko Project)’을 수립하였다.

광복군과의 접촉을 마다하지 않았다. OSS는 1945년 2월 24일 비밀정보국(SI)을 통해 ‘독수리작전’(안)을 만들었다.⁸⁵⁾

이런 양측의 필요가 맞물리면서 1945년 4월부터 수차례의 회담을 거친 한국광복군과 OSS는 광복군 제2지대 본부인 두곡에 한미 합동지휘본부를 설치하고 ‘독수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상호 공조 체제를 수립하였다. OSS의 군사훈련은 훈련 책임자 사전트(Clyde B. Sargent)가 5월 11일 두곡에 야전사령관으로 부임한 직후 광복군 제2지대(지대장 이범석)에서 시작되었다. 이어서 6월 30일 부양에 있던 제3지대(지대장 김학규)에서도 한미 합작의 군사훈련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1944년부터 1945년 해방이 될 때까지 임시정부와 광복군은 연합군, 특히 미군과의 합동 군사훈련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 추진하여 마침내 ‘독수리작전’이라는 특수 군사훈련을 한미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⁸⁶⁾

1945년 들어 임시정부와 한국광복군은 한반도침투를 위한 특수작전인 ‘독수리작전’이 상당한 진척을 보일 때 공군 건설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였다. 임시정부는 미국 OSS와 ‘독수리작전’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1945년 4월 초경 7개항으로 된 「협정에 관한 몇 가지 제안사항」을 OSS측에 제출하였다. 그 가운데 임시정부는 ‘한국 항공대’ 조직 문제를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미군측은 가능한 한 중국과 미국에서 한국 전투부대와 한국 항공대를 조직하거나 증원하도록 한국측을 도울 것이다.⁸⁷⁾

85) ‘Eagle Project(1945.2.27)’,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1(임정편 VI), 171~172쪽, 335쪽.

86) 한국광복군이 미군과 합동 군사훈련을 시도하려는 이유에는 중국 일변도의 외교관계에서 벗어나 미국 등 연합국과 다양한 외교관계를 확립해 연합군의 일원으로 교전국이 되어 전후 발언권을 강화할 목적이 담겨 있었다.

87) “Some Suggestive Points for the Agreement”,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1(임정편 VI), 1992, 172쪽. 원문은 아래와 같다.

“4. The American side, shall as far as possible assist the Korean side to

요컨대 임시정부는 미군과 군사 합작을 추진하면서 장차 전투부대와 함께 항공대 조직까지 염두에 두고 미군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한국 항공대(Korean aviation units)’는 이전부터 계획해 온 임시정부의 공군 건설 계획의 일환이었다.

1945년 4월 11일 임시정부 주석 고문이자 미군 통역으로 활동한 정환범은 OSS의 버드(Willis H. Bird) 대령에게 김구 주석·이청천 총사령·조소앙 외무부장 등 3인이 웨드마이어(Albert Wedemeyer) 사령관을 접견할 수 있도록 주선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⁸⁸⁾ 4월 17일 주석 김구와 외무부장 조소앙은 정환범을 대동하고 중경 주재 미군 총사령부를 방문하였다.⁸⁹⁾ 그런데 김구와 조소앙은 웨드마이어 총사령관을 직접 만나지는 못하고 대신 육군 준장 참모장서리 그로스(Mervin E. Gross)를 접견하였다. 그리고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한국의 완전 독립과 아시아에서 미국 이익의 보장, 대일전의 최종 승리 등을 위해 미군의 군사원조와 관련한 10가지 내용의 제안서 「미군 당국에 요청하는 군사원조 안건에 대한 개요」를 제출하였다.⁹⁰⁾

제안한 10가지 사항 가운데 공군 조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의 제8항이었다.

현재 미군이나 중국 공군에서 복무 중인 한국인들로부터 한국 공군이 조직되어야 한다. 이 초기 집단은 후에 훈련받은 요원들로 한층 강화되어 그 결과 훗날 정치적 전략에 충분한 가치를 지닌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⁹¹⁾

organize and/or augment in China and America Korean armed combat forces and Korean aviation units.”

88) Bird to William McAfee(1945.4.11), 대한매일신보사 편, 『백범김구전집』 제6권(대한민국 임시정부 III), 1999, 655쪽.

89)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의 방문」(1945. 4. 17),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 III), 2006, 173~175쪽.

90) 국사편찬위원회 편, 『한국독립운동사자료』 21(임정편VI), 1992, 190~191.

91)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표단의 방문」(1945.4.17), 『대한민국 임시정부자료집』 12(한국광복군 III), 2006, 173~175쪽.

이를 보면 임시정부는 미군이나 중국 공군에 복무 중인 자를 중심으로 한국광복군 내에 공군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였다. 그리고 조직될 공군은 훗날 정치적인 면에서도 충분한 가치를 지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해방 후 공군의 가치와 전망까지 내다보는 안목을 보였다.

임시정부의 10가지 제안에 대해 미군 당국은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으로 판단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원조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당시 그로스 참모장서리는 김구의 방문 이전인 3월 29일 미 공군지상구조대가 적 점령 지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한국인과 만주인 약 10명을 모집해 서안 근처에서 훈련시킨 후 야전에 투입해 줄 것을 장개석에게 요청한 바 있어서⁹²⁾ 임시정부의 제안을 타당하다고 보았다.

김구와 조소앙은 5월 1일 또 다시 미군총사령부를 방문해 그로스를 접견하였다.⁹³⁾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 한미 간에 군사상 접촉을 할 경우 더 이상 중국 군사위원회를 거칠 필요 없이 직접 한국광복군 총사령부와 교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문 조희 1통을 웨드마이어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⁹⁴⁾ 5월 1일은 「한국광복군 9개준승행동준구」가 취소된 후 새로운 협정인 「원조한국 광복군판법」이 체결, 발효되어 한국광복군의 지휘권이 중국 군사

원문은 아래와 같다.

“A Korean air force should be organized with the personnel gathered the Koreans serving at present either in the U. S. or the Chinese Air Force. This initial group should be further strengthened by the personnel to be trained later so that it can be utilized as an instrument giving full value to political strategy”.

92) 추현수 편, 「한인 및 동북인의 공군지상대모집에 관한 건」(1945. 4. 12), 『자료 한국독립운동』 3, 1973, 385쪽.

93) 추현수 편, 「중국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에 보낸 문건」(1945. 5. 1), 『자료 한국독립운동』 1, 1971, 427~428쪽.

94) 추현수 편, 「한미관계와 임정의 최근동태」(1945. 5. 5), 『자료 한국독립운동』 1, 1971, 432쪽.

위원회에서 임시정부로 이관되는 뜻 깊은 날이었다. 이런 배경 속에 한미 연합의 군사작전인 ‘독수리작전’을 본격 추진하였다. 그런데 임시정부가 별도로 시도한 한미 연합의 공군 건설 계획은 제안한 지 4개월 만에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말았다.

임시정부가 중국주재 미군총사령부에 공군 건설을 강력히 제안한 데는 크게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군사전략적 차원이다. 1930년대 초부터 김구가 공군 건립을 구상한 이래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을 겪으면서 공군력이 장차 독립전쟁을 완수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군사전략임을 판단하였다.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을 설립한 후 자체의 유지와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도 벽찬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부터 공군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독립전쟁의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공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해방 후 독립될 새 국가 건설에서 나타날 임시정부의 역할과 위상의 구축이다. 임시정부는 한미 공조로 공군을 건설함으로써 해방 후 자체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다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이런 정치적 고려 때문에 임정은 공군 건설을 단순히 군사상의 효율성으로만 보지 않고 해방 후 임시정부의 대내외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주요 방편의 하나로 보았다. 이런 추론의 진위가 어떠한에도 불구하고 중국 주재 미군총사령부에 공군 건설 계획을 강력히 제안한 것은 그동안 공군 건설에 대한 임시정부의 의지가 더욱 확고부동했음을 보여주는 실증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5. 맺음말

본고는 한국독립운동의 역사 중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계획하고 추진한 일련의 공군 건설 계획과 추진 과정을 살펴본 글이다. 본 글을 정리해 보면 수립 초기 임시정부는 처음부터 육·해군처럼 독립적인 공군 건설을 염두에 두지 않고 육군과 해군 안에 ‘비행기대’를 편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행학교를 설립해 항공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로스 비행학교의 설립과 운영은 항공 인재를 양성해 장차 공군 건설의 기반을 다진 첫 번째 사례였다. 월로스 비행학교의 설립 경험은 이후 임시정부가 공군 건설의 꿈과 희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중국국민당 남경정부가 한국독립운동에 관심을 갖고 본격 지원에 나서자 김구는 중국측의 도움으로 공군 건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김구의 구상만으로 끝났고 실제 공군 건립을 위한 시도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한 직후 일어났다. 먼저 임시정부는 「공군설계위원회조례」를 제정해 공군 건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한국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 「한국 현단계 공군 건설 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 등을 제정해 한미 공조의 공군 건설 공작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임시정부는 한미 연합의 합동 군사훈련을 추진함과 동시에 공군 건설을 위한 대미교섭을 적극 시도하였다.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 전에 일본의 항복 선언으로 더 이상 진척시키지 못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전개된 공군 건설을 위한 일련의 계획과 구상, 그리고 지속적인 시도는 임시정부 수립 초기부터 해방 직전까지 끈질기게 추진되었다. 이런 역사적 맥락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계승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공군이 해방 직후 갑자기 창군된 것이 아니라 공군 건립을 위한 임시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부단한 노력이 담긴 역사적 산물임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때 대한민국 공군 기원에 대한 실마리를 풀 수 있고 그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원고투고일: 2015.10.5, 심사수정일: 2015.11.22., 게재확정일: 2015.11.23.]

주제어 : 월로스 비행학교, 남경정부, 윤봉길, 노백린, 안창호, 김구 한국 광복군, 공군설계위원회

<ABSTRACT>

The Plan for the Building of Air Force and its Propuls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ong Sun-pyo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bserve how ROK Provisional Government planned the Air Force and progressed it in the history of Korean independent movement. This study will help people find the origin of Korean Air Force with historical basis.

At the beginning of the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ment, it was not supposed to have its own Air Force; however, air squadron was formed within the army and navy. The government planned to train some talented people through an aviation school. The first case was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Willows aviation school to provide well trained pilots. The experience that people had managed the Willows aviation school was able to motivate Provisional Government not to give up the vision of the foundation of the Air Force.

As Kuomintang of China in Nanjing government was interested in the Korean independent movement and began supporting it in earnest after the patriotic deed of Yun Bong-Gil in 1932, Kim Ku tried to seek the way for the foundation of the Air Force with the help of China. However, it was just his idea that did not really carried out. People had tried to found the way of building for Air Force right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Independent Army. They started organizing an Air Force design committee within the Korean Independence Army, also enacting its ordinance, and researching how to set up the Air Force concretely. As a result, Provisional Government planned to build the Air Force with

the help of the army of the United States. It could help Provisional Government push forward the Korea-U.S joint military drill and simultaneously try to negotiate the foundation of its Air Force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they got any tangible results, they could not proceed it anymore because of the declaration of Japanese surrender.

Being developed centering on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 series of plan and design and an incessant trial for founding the Air Force was persistently propelled from the early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Provisional Government to right before independence. We can tell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Air Force was not an abrupt one but a historic achievements which contained the strong determination and constant exertions of Provisional Government toward setting up of the Air Force if we understand the historical context of it and inherit its meaning. By doing it, we can solve clues of the origin of the Korean Air Force and secure its legitimacy from now on.

Key Words : Willows aviation school, Nanjing government, Yun Bong-Gil, Rho Baek-Rin, Ahn Chang-Ho, Kim Ku, Korean Independence Army, Air force design committee

